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이 논문은 제4회 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2018. 2. 6~9.)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소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 III.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북한의 최신 소학교,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의 국어교육 양상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해방 후 70여 년 동안 분단되어 교류가 미미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 남한 예술단 평양 공연,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등으로 남북 통일 및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교육과정에 밝힌 국어나 언어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부터 이를 쉽게 알 수 있다(권순희·강보선·주재우·정진석, 2017: 6). 남한 2015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다. 학습자는 국어를 활용하여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세계를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국어 활동을 통해 문화를 이해·향유하며 새로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한다. 한편으로, 국어는 학습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다.” 이에 비

해 북한 2013년 교육과정의 머리말에서는 언어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어는 인간교제의 힘 있는 수단이고 자연과 사회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인간교양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조치에 따라 2012년 9월 이후 학제 개편, 교육 제도 및 교육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의 학제를 김정은 체제에서는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학제로 바꾸었다. 2012년 북한의 학제 개편으로 의무교육으로 삼고 있는 유치원 1년을 포함한다면 남한의 학제와 유사해졌다. 북한에서는 교육과정 발표와 더불어 일부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였으며, 교육과정 발표 이후 일부 교과서의 새로운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남한에 입수된 북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북한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중요한 작업이다.

II. 소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현행 북한 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앞서 북한 교과서에 대한 선행 연구¹⁾를 살펴보면 국토통일원(1987, 1992), 허숙(1990), 심경호(1991), 전수태(1992), 최현섭·이인제·최영환(1996), 윤희원·박갑수·박영목·이주행·한철우(1997), 김인전(1998), 한철우(1998), 김재복·김왕근·양비경·이혁규(1998), 이주행(1998), 민병근(1999), 이인제·최미숙·송현정·이재기·민병근(2000), 김양희(2004), 이성연·정옥란(2006), 허재영(2007), 이성연(2007), 도설희

1) 선행 연구에 대한 서지사항과 자세한 논의는 권순희·주재우·김윤정·변경가·정경화(2018)를 참조할 것.

(2008), 김선철·김건희(2009), 이동배(2009), 홍지선(2013), 진용성·차해나(2018)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 교과서 대상 주요 연구 성과

국토통일원 (1987)	인민 학교 1-4학년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반민족적 교육 실태 폭로 및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치사상 교육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으나 정치하게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못함.
허숙 (1990)	북한 인민 학교의 국어 교과서 분석함에 있어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가다머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해석하였음. 국어 교과서의 체제상 특징,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 분석, 단원 학습 제재의 주제 분석하였음. 국어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적 분석보다는 인민 학교의 교육 내용 분석이 목적인.
국토통일원 (1992)	1987년의 국토통일원의 연구보다 분석 대상 교과서의 수가 증가함. 국어과 교육 본질 영역의 학습량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음. 분석 결과 정치 사상적 주제가 많았음을 제시함.
전수태 (1992)	남북한 초등(남한의 초등학교 vs 북한의 인민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을 하였는데, 특히 어휘에 집중하여 분석함. 북한의 학제와 교육 내용, 인민 학교의 국어 학습 시간 배당, 교과서의 내용과 어휘 분석이 제시됨. 어휘, 맞춤법, 표기법, 외래어, 특정 표현 등의 문제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의 다른 이념, 사회 체제 구축, 언어 정책 등에 대해 전제하지 않음. 폐쇄 체제에서 만들어진 언어 규범과 관련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님.
김재복 외 (1998)	북한 교과서 검토 자료 국어교수법(1973)과 국어문학 과목의 교수 요강(1~3, 4~5, 1984)을 분석하여 통일 대비 교과서의 기능과 유형을 탐색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통일 대비 교과서의 예시 단원을 구성하고 편찬 및 공급 체계를 탐색함.
이인제 외 (2000)	남북한 교과서의 편찬 주기, 학교급별 구성과 체제 비교, 단원 구성 방식, 집필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등을 비교하여 분석함. 인민학교 국어 1-1, 1-2, 2, 3, 4학년용과 고등중학교 국어 1, 2, 3학년, 고등중학교 국어문학 4, 5, 6학년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남북 교과서의 영역별 학습 요소, 학습 제재, 장르 구분의 특성, 제재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통합 교과서의 방향으로는 학습자 중심, 통합적 활동 강조, 내용보다는 방법 강조, 현실 지향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통합의 원리로는 이념 보편의 원리, 실용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구체성의 원리, 심리적 적합성의 원리, 문화성의 원리, 학습적 적합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통일 대비 단계 및 전략을 제시함.

1. 소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체계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출판되었을 것이나 4학년과 5학년 교과서는 아직 미확보 상태이다. 한국에 입수된 소학교 3학년까

지의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 소학교 교과서의 집필진을 살펴보면 부교수 두 명이 참여하고 있고 1학년~3학년까지 1학년 집필진 김화옥을 제외하면 집필진이 거의 동일하다. 1학년 교과서는 한 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과 241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년과 3학년 교과서는 각각 1, 2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2학년 교과서는 총 28과 336쪽, 3학년 교과서는 총 29과 33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2학년 2학기 교과서의 시작 페이지가 1쪽부터이나 시작 단원은 1과가 아니고 16과부터이다. 3학년 2학기 교과서 역시 시작 페이지는 1쪽부터이나 시작 단원은 1과가 아니고 17과부터이다.

주요 서지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권순희 외, 2018: 149).

〈표 2〉 북한 소학교 국어 서지사항

학년	대상 교과서	집필자	낸곳	발행년도	총 쪽수
1	국어(소학교 제1학년용)	부교수 리수향, 부교수 성순옥, 김화옥, 하정순, 송일녀, 염정실, 김성옥, 박은하	교육도서출판사	2013 (주체 102)	241
2-1	국어(소학교 제2학년용)	부교수 리수향, 하정순, 부교수 성순옥, 송일녀, 염정실, 김성옥, 박은하, 리은희	교육도서출판사	2014 (주체 103)	176
2-2	국어(소학교 제2학년용)	부교수 리수향, 하정순, 부교수 성순옥, 송일녀, 염정실, 김성옥, 박은하, 리은희	교육도서출판사	2014 (주체 103)	160
3-1	국어(소학교 제3학년용)	부교수 리수향, 염정실, 송일녀, 김성옥, 하정순, 부교수 성순옥, 박은하, 리은희	교육도서출판사	2014 (주체 103)	177
3-2	국어(소학교 제3학년용)	부교수 리수향, 염정실, 송일녀, 김성옥, 하정순, 부교수 성순옥, 박은하, 리은희	교육도서출판사	2014 (주체 103)	160

현행 북한 소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체계

소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2014년도판)		
구분	내용	분량(쪽)
앞표지	- 국어 소학교 2-1 - 교육도서출판사 - 주체 103(2014)	1
머리말 활용 안내	- 없음	0
차례	- 없음(아래는 필자가 넣은 것임) 읽기 제1과. 공화국기발 말하기 제2과. 소개말은 어떻게 할까요 읽기 제3과. 귀중한 공부시간 말하기 제4과. 인사말을 잘하자요. 글짓기 제5과. 문장을 지어보자요 읽기 제6과. 놀고먹던 꿀꿀이 글씨쓰기 제7과. 곱게 쓰자요 읽기 제8과. 만경대 말하기 제9과. 말을 정확히 전달하자요 글짓기 제10과. 생각하며 지어보자요 듣기 제11과. 청개구리이야기 읽기 제12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읽기 제13과. 땀이 따온 수박 말하기 제14과. 말을 다정하게 주고받아요 읽기 제15과. 들꽃소년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0
본문 및 학습 활동 구성	단원명(읽기, 말하기, 듣기, 글짓기, 글씨쓰기 등 영역 표시 있음) 삼화만 제시하거나 간단한 문구 제시함. ① ~에 대하여 알아보자요 ②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자요 (해설글+문제) ③ ~ 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자요 ④ 본문을 바로 읽어보자요 ⑤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자요 ⑥ 쉬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쓰자요 ⑦ 맞춤법에 맞게 쓰자요. ⑧ 문장을 공부하자요 ⑨ ~은 어떤 말인가 알아보자요 ⑩ ~ 놀이를 해보자요 (단원마다 차이가 있음, 양식 통일되지 않음)	174 (단원별로 페이지 분량 다름)

소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2014년도판)		
구분	내용	분량(쪽)
학습 활동 세부사항	① 제목을 알아보지요 ②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지요 ③ 《쉬》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을 알아보지요 ④ 낱기를 바로하며 문장을 읽어보지요 ⑤ 본문을 류창하게 읽어보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⑦ 문장을 공부하지요 ⑧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1) ⑨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2) ⑩ 쉬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쓰지요	단원별로 페이지 분량 다름 5-11
편권장	- 집필, 심사, 편집 - 컴퓨터편성, 그림, 교정, 장정 - 낸곳, 인쇄소 - 인쇄일 발행일 - 가격	1

남한의 2017년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명 옆에는 ‘누리며 즐기
기, 함께 이야기하기, 마음 나누기, 다르게 생각하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국
어과 교과 역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 교과서에서는 읽기, 말하기, 듣
기, 글짓기, 글씨쓰기 등 영역별 표시를 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남한의 경
우 역량 중심 교육과정, 북한의 경우 영역별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남한 교과서에서는 단원을 구성할 때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
법 영역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 비해 북한 교과서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읽기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소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의 경우에도 읽기 단원이 15개 단원 중 7개로 47%를 차지하고 있고, 말하기
단원이 4개, 글짓기 단원이 2개, 글씨쓰기, 듣기 단원이 각각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보아 북한은 국어교육에서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학습목표를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답아 준비-기본-실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지식적인 앎에서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북한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학습목표에 따라 구성을 달리하기보다는 보편적인 학습활동을 반복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맞춤법, 쉬갈리기 쉬운 단어, 발음, 단어의 뜻, 문장 등 문법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소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문법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기초원리 지식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반영한 교과서 구성이다. 학습목표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큰 변화이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교과서에 학습활동이 거의 없고, 읽을 본문 글에 속담 정도를 소개하는 구성이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소학교 <국어 2> 교과서 내용

소학교 국어 2-1 교과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북한 소학교 국어 2-1 교과서 주요 내용

단원	단원명	문종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	공화국기발	동요	마음이 나타나게 옳기	김정일대원수님이 친히 지으신 동요, 공화국기 발을 휘날리며
2	소개말은 어떻게 할까요	(소개하기 사례)	소개할 때의 레절	공적인 상황이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소개 말 하기
3	귀중한 공부시간	이야기글	본문 바로 읽기 본문내용을 자기 말로 말해보기	공부시간에 총쏘는 시늉을 하며 놀던 웅이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공부를 잘하자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는 내용 이어내기 발음 알기

4	인사말을 잘하지요.	(인사말 사례)	인사말을 알기 인사말 해보기	웃사람(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친구끼리의 인사말, 동생에게 하는 인사말 속담 공부
5	문장을 지어보지요	(문장 사례)	문장 알기	문장 만들기, 문장 짓기, 잘못 쓴 문장 고치기, 단어 만들기
6	놀고먹던 꿀꿀이	동화	본문을 류창하게 읽기 꿈기를 바로하며 문장 읽기	주인집잔치상 반찬감으로 오를 동물을 고르기 위해 회의하는 내용으로, 말, 황소, 명명이, 고양이, 닭 등이 하는 일을 말하고, 놀고먹던 꿀꿀이가 잔치상 반찬감으로 올라야 한다는 내용
7	곱게 쓰지요	(글씨 사례)	글자 곱게 쓰기	세운 글자(자음자와 모음자가 옆으로 나란히 있는 글자), 눕힌 글자(자음자와 모음자가 우아래로 나란히 있는 글자), 받침 글자(흡받침, 돌받침) 써보기
8	만경대	해설글	본문 바로 읽기	김일성대원수님이 탄생한 만경봉기슭만경대에 있는 고향집에 대한 묘사 소리빠지기발음, 합친말 만들기
9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요	(전달 상황 사례)	전달말할 때의 레절 알기 전달하는 말하기	전달하는 말 사례 제시와 전달 놀이 활동 제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
10	생각하며 지어보지요	(두개 문장 사례)	두개 문장짓기	두개 문장 설명 이음말(그러나, 그리고, 그리하여 등), 문장부호 《 》, ?를 넣어 두개 문장짓기
11	청개구리 이야기	(이야기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태도 알기 자기 생각 말하기	《청개구리》 이야기 《학습장 한권과 밥 한그릇》 이야기 가족관계 나타내는 말, 단어기억놀이
12	아름다운 우리 나라	동요	류창하게 읊기, 꿈기를 바로하며 읊기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예찬하는 동요 된소리되기 발음
13	맘매가 따온 수박	동화	본문 내용 알기 류창하게 끊어 읽기	수박밭에서 맘매가 따온 수박을 혼자 먹지 않고 친구 양에게 주고, 양은 또 누렁이를 생각하며 누렁이에게 주고, 누렁이는 맘매를 생각하며 수박을 맘매에게 주게 되면서 서로 서로를 위하는 모습의 이야기 셈 셀 때 쓰이는 말,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에 대하여 알아보기
14	말을 다정하게 주고받아요	(대화 사례)	레절있는 대화 알기	충고할 때와 충고 받을 때 레절있게 말하기 감정을 담은 대화 알기

15	들꽃소녀	이야기글	본문 내용 알기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도사적을 전하는 표식비를 깨끗이 닦고 꽃다발을 드린 세 소녀 이야기. 아버지장군님께서 세 소녀의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은정을 베풀었다는 이야기 생신하다(圖: 심상하다):시들다, 소리와 모양을 본딴말
	배운것을 다져보지요	동요	자신있게 읊기	애기젓나무를 심고 키우는 모습을 노래함. 젓나무와 우리들이 함께 커서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셔갈 애국의 마음도 키우겠다는 내용

소학교 국어 2-1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 내용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일대원수님이 친히 지으신 동요를 읽고 있으며, 만경봉 기슭의 만경대를 소개하는 글에서도 김일성대원수님이 탄생한 고향집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교과서에 비해 우상화 내용이 줄어든 반면 동화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듣기, 말하기, 글짓기의 활동 위주의 설명 방식이 추가된 것이 특이사항이다.

둘째, 교과서에 실물 사진은 잘 나오지 않고 있으며, 주로 삽화가 나온다. 삽화에서는 남녀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가 앞치마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학생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거나 머리가 길 경우 머리를 땀거나 묶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여교사는 한복을 입은 형태로 형상화 되어 있고, 어머니는 치마정장(투피스)을 입은 모습으로, 아버지는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소학교 학생 모두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소년단 표시의 빨간 스카프를 한 학생의 모습도 자주 나온다.

셋째, 소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글짓기, 글씨 쓰기를 각각 영역별로 한 개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읽기 단원에서는 본문 글을 제시하기 전에 제목에 대해 추론해 보는 활동 ①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활동① 자료

(예1) ① 제목을 알아보지요

- ◆《귀중하다》는 무슨 말일까요?
 옥이: 아주 구하기 힘든것을 말해.
 순이: 막 다루면 안되는것일거야.
 철남: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것이야.
 나: _____
- ◆자기한테서 가장 귀중한것을 말해보지요.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음) 축구선수에게서 귀중한것은 뽀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음) 화가에게서 귀중한것은 붓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음) 군인에게서 귀중한것은 총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음) 학생에게서 귀중한것은 □ (소학교 국어2, 28쪽)
- ◆공부시간은 왜 귀중한 시간일까요?
- ◆학생은 공부시간을 어떻게 귀중히 여깁니까?

김정일 체제 하에서 나온 교과서에서는 본문 이전에 리드문도 없었고,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 2013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제목을 추론해 보게 하는 활동이 들어가서 인지주의적 관점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예1)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을 보면 “시간일까요?”, “여깁니까?”와 같이 의문문에 -가, -까를 혼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자요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의존명사를 “귀중한것은”과 같이 붙여쓰기를 하고 있는 것도 남한과 다르다. 또한 군인에게 귀중한 것이 총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살상무기인 총을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남한과 다르다. 본문의 내용에서도 용이라는 학생이 총쏘는 시늉을 하거나 권총으로 옆동무를 쿡쿡 찌르며 키득키득 웃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에서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총, 칼, 무기, 맥주, 담배 등의 용어를 교과서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넷째, 본문은 동화(6과, 13과), 이야기글(3과, 15과), 동요(1과, 12과, 배운 것을 다져보지요), 해설글 등 문종을 본문 앞에 명시하고 있다. 남한의 초등학

교에서 글의 유형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섯째,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에서는 남북한 공통으로 다룰 수 있는 제재가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11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는 통일 후 남한과 북한에서 공통으로 다룰 수 있는 제재이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남북 공통으로 다룰 수 있는 작품은 몇 편 되지 않는다.

III.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1.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자와 구성 체계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는 1년에 한 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 집필자를 살펴보면, 1~2학년 집필자와 3학년 집필자가 크게 다르다. 3개년 간 참여한 집필자, 구경희를 제외하면 3학년 집필자는 대폭 교체되었다. 실제 교과서를 분석해 봐도 1~2학년과 3학년의 교재는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초급중학교 집필자는 소학교나 고급중학교와 중복되지 않는 완전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초급중학교 집필자는 초급중학교 교과서 집필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권순희 외, 2018: 194).

〈표 6〉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서지사항

학년	대상 교과서	집필자	반곳	발행년도	총 쪽수
1	국어(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우인철, 구경희, 방복림, 문성, 백광명, 장광길, 리정화	교육도서출판사	2013 (주체 102)	232
2	국어(초급중학교 제2학년용)	우인철, 백광명, 구경희, 문성, 방복림, 장광길	교육도서출판사	2014 (주체 103)	208

3	국어(초급중학교 제3학년용)	리근세, 최은향, 한승이, 구경희, 김만경, 박복실	교육도서출판사	2015 (주체 104)	224
---	-----------------	------------------------------	---------	------------------	-----

교과서 구성을 살펴보면 머리말에서부터 관권장까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표 7〉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구성 체계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2013 개정)		
구분	내용	분량(쪽)
앞표지	- 국어 초급중학교 2 - 교육도서출판사 - 주체 103(2014)	1
머리말	- 2학년 《국어》의 첫페이지를 펼치며	2
차례	제1과. 김정일장군의 노래 제2과. 자랑 제3과. 까치와 여우 제4과. 하늘가에 솟은 집 제5과. 기관총 나도 할수 있다 제6과. 선군풍경 제7과. 이마를 친 메토끼 제8과. 천리길에 미신 수레 제9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제10과. 행랑자식 나도 할수 있다 제11과. 빛나는 우리 평양 제12과. 장수와 검 제13과. 덕만이와 쇠돌이 제14과. 순철이는 죽지 않았다 제15과. 여름방학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자 나도 할수 있다 제16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제17과. 묘향산 만폭동등산길을 따라 제18과. 거짓말이 진짜로 된 이야기 제19과. 사랑의 축복 제20과. 날개 나도 할수 있다 제21과.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제22과. 소중한 싹 제23과. 꿀벌 마야 제24과. 내가 본 고향 제25과. 아버지, 어머니 웃으세요 나도 할수 있다	2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2013 개정)		
구분	내용	분량(쪽)
본문	- 단원명 - 학습목표 제시 - 읽을 거리 - 각주로 단어 풀이 - 참고 자료 제시	200 (단원별로 페이지 분량 다름)
학습 활동 1 세부사항	- 학습의 길 - 1. 어휘 의미 파악 문제(유의어 찾기, 어울리는 말 찾기 등) - 2. 기본 내용 파악 - 3. 문법지식 익히기 - 문법지식 정리한 내용	
학습 활동 2	- 실천의 길 - 적용하기에 해당함 - 이야기해봅시다, 말해봅시다 활동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단원 마무리	- 나도 할수 있다 - 5단원마다 나오며 단원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임 1. 문법지식 정리 2. 표현지식 정리 3. 실감나게 읽어봅시다(읽기 활동) 4. 듣고 말해봅시다(듣기, 말하기 활동) 5. 지어봅시다(쓰기 활동) - 구성이 단원 내용에 따라 약간 다름.	
찾아보기	- 찾아보기 - 페이지 순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나다순이 아님 - 후반부 사람 이름 제시는 가나다순 배열함	
참고문헌	- 참고도서 - 장르별 타이틀, 책이름, 출판사, 연도순으로 기술함	1
판권장	- 집필, 심사, 편집 - 컴퓨터편성, 그림, 교정, 장정 - 낸곳, 인쇄소 - 인쇄일 발행일 - 가격	1

2. 초급중학교 <국어 1> 교과서의 특징

초급중학교 국어 1의 교과서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북한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주요 내용

	단원명	문종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	김일성 장군의 노래	송가(시)	송가의 절별 내용 파악 가사를 살려 읊기	작가: 리찬(작가 소개 있음) 김일성의 업적이 뛰어난
2	아휴령의 배사공	이야기	글의 기본내용 및 교훈적 내용 파악	난파되었다가 탈출하는 열 명의 사람이 협력하여 물로 나감
3	조선의 제일봉	소개 글 (설명문)	글의 내용 파악 토막글 짓는 능력 키우기	백두산 줄기에서 솟은 제일봉의 빼어난 예찬
4	마부와 길손들	동화	단락에 대해 알기 내용체계를 말하는 능력 키우기	작가: 리성철 산길을 가던 마부와 여러 동행이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꿈을 물리침
	나도 할 수 있다			1~4과 복습 목적의 학습 문제
5	밝은 눈 밝은 귀	동요	동요의 운율 파악 운율에 맞게 살려 읊는 능력 키우기	애기나무 버팀목을 세워 주고 논둑을 막은 학생의 사려를 노래함
6	나는 철령소녀	일기	김정일 업적 새기기 일기 쓰는 능력 키우기	군인인 아버지의 전출에 따라 밤중에 이사하면서 쓴 일기
7	한사람 또 한사람	동시	동시의 감정정서 파악 그에 기초하여 동시 살려 읊기	작가: 성연일 여군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사진을 찍어주는 김정은 예찬
8	뜨거운 마음으로	대화문	환경과 대상에 맞게 축하 위로 격려의 말을 하는 법 알고 하기	생일 축하, 병문안, 경기 시험 후의 대화
9	세계탁구녀왕 박영순	소개 글 (전기)	소개한 글의 내용 파악 동무를 소개하는 글 짓기	1956년생 박영순, 열심히 노력하여 1975,77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패
	나도 할 수 있다			5~9과 복습 목적의 학습 문제
10	쫄딱 녹았지	동요	동요를 정서적으로 읊기 단어의 감정적뜻밖갈 파악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의 놀라운 전술 예찬, 미군 조롱
11	물과 건강	설명문 (과학)	설명글 체계 파악 설명하는 토막글 짓기	물을 마시는 방법, 주의 사항
12	악어의 눈물	우화	이야기줄거리 밝히기 우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 키우기	작가: 한일영 눈물을 흘리는 악어를 동정하던 원숭이가 악어에게 잡아먹힘

13	CNC자랑	(참관견학기)	대화를 보고 정확히 질문하고 명백하게 대답하는 능력 키우기	회천 연하 기계 공장 참관, 제품을 깎아내는 CNC 기계 견학
14	까까머리학생	소설	이야기줄거리 파악 작품을 통하여 받은 느낌을 말하기	작가: 강훈(작가 소개 있음) 가난해서 어머니가 직접 이발해 준 영남이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나 남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돌려 친구의 사과를 받아낸다. <더 읽을거리> 방정환의 '만년사썸'
	나도 할 수 있다			10~14과 복습 목적의 학습 문제
15	불후의 고전명작 <나의 어머니>	가사 (시)	명작 내용 파악 가사를 살려 읊기	작가: 김정일 나를 키워주고 이끌어준 김정숙 찬양
16	교실의 참된 주인이 되겠다	토론글 (자아비판글)	김정은 원수 말씀 새기기 토론글 체계 있게 쓰는 능력 키우기	대원수 김정일의 말에 비추어 자기 주변(교실)을 깨끗이 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 다짐
17	산과 강에 대한 이야기	동화 (우화)	동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기	작가: 황령아 서로 남의 탓만 하던 강과 산이 까치의 수고와 인간들의 노력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감
18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전기)	참된 소년 혁명가 되려는 마음 안기 자신의 주장을 바로 말할 줄 아는 능력 키우기	항일운동 시기에 위만 경찰에게 붙잡힌 전기육 소년이 자신을 사형용 총알을 아껴 유격대에 보내달라고 하여 중국 경찰을 감동시킨 이야기
19	나래퍼는 시절	단편소설	대원수의 사랑 가슴에 새기기 단편소설의 인물 모습을 밝히는 능력 키우기	작가: 신중봉 소년단 야영에 참여하고 싶어 한 가짜 야영생 영팔이와 무림이가 원수님(김일성)의 주선으로 참가하여 모범학생으로 자라남
	나도 할 수 있다			15~19과 복습 목적의 학습 문제
20	무슨 말로 회답을 써보낼가요	동시	원수의 사랑 깊이 새기기 동시의 내용 파악하기 시적계기를 밝히는 능력 키우기	작가: 김경준 소년단 경축 행사에 참가하여 김정은 옆에 앉았던 소녀가 많은 편지를 받고 이에 답하는 시
21	성냥파는 소녀	동화	주인공의 모습을 밝히는 능력 키우기	작가: 안테르센(작가 소개 있음) 성냥팔이 소녀가 선달그름에 성냥을 팔지 못하고 가진 성냥을 켜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가 동사함

22	만형	단편소설	김정일 장군 고매한 품모 깊이 새기기 자기 생각과 느낌 말하기	작가: 김용길 각각 성이 다른 일곱 형제(입양 가족) 중 장남인 일남이가 동생을 위해 물고기를 잡다가 김정일 만나 칭찬을 받음
23	만경대의 민들레	일기 (관찰 일기)	자연현상에서 받은 느낌을 생동하게 표현하는 능력 키우기	만경대에 올라 민들레 꽃을 관찰하고 김일성을 회상하며 예찬함
24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말	설명글	설명한 글의 체계와 설명방법을 파악 주장을 세우고 근거를 들어 말하기	김일성의 교시처럼 우리말은 유창하고 고저, 장단이 있으며 아름답고 표현이 많다.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고 편리하다.
	나도 할 수 있다			20~24과 복습 목적의 학습 문제

2013년 개정 초급중학교 <국어 1> 교과서는 2004년판 교과서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대폭 줄어든 단원수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예를 들면, 2013년 초급중학교 <국어 1>은 2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4년도판 국어 중학교 1은 4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단원 글의 저자명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초급중학교 <국어 1>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저자명이 제시되어 있으나 2004년도판 국어 중학교 1은 저자명이 대부분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글의 말미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셋째, 리드문 형태의 학습목표 제시, 학습활동 제시 등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2004년도판 교과서에서는 리드문도 없고, 학습목표는 말할 것도 없고 학습활동도 없었다. 2004년도판 국어 중학교 1 교과서 3단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읽기교재

3. 자동차는 전선으로 달린다

인민군용사들이 원쑤 미제놈들을 때려부시며 남으로남으로 나아가던 어느날 이었다.

전선에 포탄을 나르는 운전사인 나는 중대부에서 중대장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이 숨이 차서 들어왔다.

(중략)

나는 누를길 없는 걱정을 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어. 우리는 꼭 승리해!)라고-

자동차들은 다시 전선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김룡익)

[속담]

○ 하나를 알아야 열을 안다.

한꺼번에 풍부한 지식을 가질수 없으므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말.

○ 열번 재고 가위질은 한번 하라.

무슨 일이나 이모저모 깊이 생각하고 따져본 다음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
(전장길 외, 2004: 10, 16)

다음 <그림 1>은 2013년도판 북한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17단원이다. 이를 통해 북한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계와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리드문과 학습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제17과. 산과 강에 대한 이야기

황령아



산과 강에 대한 재미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동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웁시다.

1. 산과 강은 서로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산과 강은 서로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과 강은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늘 쌍 다투기가 일쑤였답니다. 왜 다투는가구요?

그건 서로서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때문이었습니다. 즉 산은 강때문에, 강은 산때문에 말이예요. 이상하지요?

그러나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될거예요.

어느때인가— 어찌면 그리 먼 옛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센 바람에 나무들이 서로 부벼대다가 열이 나서 불이 일었는지 아니면 벼락이 마른나무에 떨어

135

〈그림 1〉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제17과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황령아’라는 작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글을 읽기 전에 리드문 형태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형태의 통일된 형식의 문구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도판 교과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나 그들이 말한 대목이 나오면 기존 활자보다 두드러지게 굵고 큰 글씨로 표시하였으나 2013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김정일, 정일봉**”과 같이 지도자의 이름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비슷하게 처리하였다. 반면 그들이 말한 대목은 여전히 굵고 큰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2013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을 ‘**학습의 길**’과 ‘**실천의 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학습의 길

1. 어휘표현을 새겨봅시다.

- ❖ 다음 문장에서 밑줄을 친 단어들을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들로 바꾸어보면서 그 뜻을 풀이해봅시다.
 - ㄱ) 늘썰 다투기가 일췌였답니다.
 - ㄴ) 그건 서로서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때분이었습니다.
 - ㄷ) 싸움은 더 격렬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 ㄹ) 그러나 사람들은 강을 타하지 않았습니다.
 - ㅁ) 강은 수집은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 ❖ 문장속에서 밑줄친 단어들의 뜻차이를 밝혀봅시다.
 - ㄱ) 강은 수집은듯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 ㄴ) 새벽닭도 울기 전에 김을 매라는 지주놈의 생트집이 어이가 없었지만 돌쇠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 ❖ 다음 문장들에서 밑줄을 친 부분의 의미와 표현효과를 말해봅시다.
 - ㄱ) 전에는 없는 물고기가 없었고 백조들이 가득했어요.
 - ㄴ) 더덕, 고사리, 참버섯 등 산나물로부터 진귀한 약초인 산삼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었습니다.

145

2. 이야기 줄거리를 밝혀봅시다.

- ❖ 매 장의 기본내용을 이야기 해봅시다.
- ❖ 동화의 이야기 줄거리를 밝혀봅시다.

이야기 줄거리	동화의 부분	내 용
사건의 발생		
사건의 발전		
사건의 절정		
사건의 해결		

3. 동화의 특성을 밝혀봅시다.

- ❖ 동화가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이 동화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니까?
- ❖ 산과 강, 까치 등을 어디에 비겨 형상하였습니까?

4. 문법지식을 새겨봅시다.

성구와 속담

- 꿈무늬를 빼다(성구)
- 빛 좋은 개살구(속담)
-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속담)

146

〈그림 2〉 학습의 길



1. 작문에 반영된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말해봅시다.

- ❖ 처음에 산과 강은 서로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산과 강은 어떤 일을 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까?
- ❖ 벌거숭이된 산과 피해 입은 강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었습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 ❖ 싸우고있던 산과 강을 누가 어떻게 다스리었습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 ❖ 멋지게 달라진 산과 강의 모습을 말해봅시다. 산과 강을 더 아름답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2. 성구,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봅시다.

- ❖ 다음 성구들의 뜻과 짜임을 풀이하고 그것이 들어간 짧은글을 지어봅시다.
 - ㄱ) 손이 크다, 귀가 넓다
 - ㄴ) 손이 모자라다, 발이 닳다
 - ㄷ) 손을 내밀다, 눈을 팔다
 - ㄹ) 손에 넣다, 눈에 밝히다
- ❖ 《-듯》, 《-격》, 《-기》, 《-다》형으로 이루어진 속담을 찾고 그것이 들어간 짧은글을 지어봅시다.

148

〈그림 3〉 실천의 길

‘학습의 길’은 어휘 표현, 본문 내용 요약, 문법지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재에 대한 학습 활동의 구성이다. ‘실천의 길’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기능(수행)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초급중학교 <국어 2> 교과서의 특징

북한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는 기존 교과서에 비해 2014년 발행 교과서에서 서문 양식이 추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14년 발행 초급중학교 국어 2 교과서에서는 '2학년 《국어》의 첫페이지를 펼치며'라는 명명으로 교과서 서문을 싣고 있다.

둘째, 서문에서 김정일 교시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서문의 앞부분에서 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다 꾸준히 배우고 또 배우면서 지식의 탑을 한자두자 높이 쌓아나가야 한다.》” (우인철 외, 2014: 1).

셋째, 북한의 새 교과서에서는 목표 중심의 국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목표 중심 국어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기존 교과서에 비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서문에서 “탐험가가 자기의 목표부터 정확히 알고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듯이 우리는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학습과정에 도달해야 할 목표부터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우인철 외, 2014: 2)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북한의 새 교과서에서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의 경우 작품에 대한 견해와 입장, 정서적 느낌, 체계적이고 억양을 살린 말하기 능력, 생활적인 글, 논리적인 글 쓰기 능력, 어휘력, 감정정서 및 표현 능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각 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서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자기 주위와 작품속의 생활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견해와 입장, 정서적느낌을 가진데 기초하여 임의의 목적에 맞게 중심을 잡으면서도 체계성있게 그리고 억양을 살려 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들과 글들을 살펴 읽고 그 내용과 특징

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자기 생활주위는 물론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글감을 잡아 생활적인 글을 짓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과외시간에 책읽기를 꾸준히 하여 보다 많은 어휘를 소유하고 풍부한 감정정서와 표현능력을 키워야 합니다.”(우인철 외, 2014: 2)

각 단원에서 밝히고 있는 학습 목표의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영원한 주체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임의 업적을 새기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의 절별내용을 파악하고 살려내는 능력을 키웁시다.”(우인철 외, 2014: 5)

다섯째, 북한의 새 교과서에서는 경쟁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서문에 학습자 상호간의 경쟁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모두 서로 경쟁해보기로 하고 지식탐험의 새 출발선을 떠나봅시다.”(우인철 외, 2014: 2)

여섯째, 북한의 새 교과서에서는 각주로 어휘 풀이 제시하고 있다. 본문 내용에서 어려운 어휘를 본문 하단에 각주로 풀이하고 있다.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 위업-위대한 사업. 가치-《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사상이나 행동강령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르는 말.

일곱째, 북한의 2014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사진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삽화의 양이 증가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기존 교과서에서는 사진이 없었으나 2014년 개정 교과서에는 사진이 추가된 단원이 간혹 보인다. 예를 들면,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평양 고층 아파트,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등이 사진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에 사진을 실는 것은 삽화를 실는 것보다 기술이 더 필요하다. 특히 칼라 인물 사진을 넣을 경우에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찍어야 하고 명암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비용 역시 많이 드는 편이다. 북한 교과서에 인물 사진²⁾이 잘 나오지 않는 것

2) 국어 초급중학교 2 교과서 전체에서 인물 사진이 1컷만 나온다. 19과에서 조선소년단창립

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여덟째, 북한의 새 교과서에서는 ‘학습의 길’이라는 항목으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한 단원에 제재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제재 후에 문법이나 속담에 대한 학습 설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14년도 개정 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 제시-제재 제시-학습 활동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활동은 어휘 표현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단원에 따라 학습해야 할 내용 위주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마지막에서는 문법지식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아홉째, 북한의 새 교과서에서는 ‘실천의 길’이라는 항목으로 응용 및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단원의 마지막에는 동시를 읊어 보거나 본문 내용의 표현의 차이를 알아보기, 감상문 쓰기 등 국어생활 실제 차원의 응용 및 적용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열째, 북한의 새 교과서에서는 10 단원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복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는 활동을 제시한 ‘나도 할 수 있다’ 항목이 있다. 문법,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여러 국어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10 단원마다 한 개씩 삽입하고 있다.

4. 초급중학교 <국어 3> 교과서의 특징

북한 초급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는 기존 교과서에 비해 2015년 발행 교과서에서 서문 양식이 추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15년 발행 초급중학교 국어 3 교과서에서는 ‘초급중학교 <국어>의 령마루에서’라는 명명으로 교과서 서문을 실고 있다.

66쪽경축행사에 참여하여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로는 흑백 사진인지 컬러 사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3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원에서 5단원까지는 이야기가 주는 흥미, 6단원에서 10단원까지는 설명과 리해, 11단원에서 14단원까지는 묘사로 펼치는 화폭, 15단원에서 18단원까지는 설득의 묘리 등으로 명명을 하여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가 주는 흥미 제 1 과. 기쁨의 답사 ³⁾ 제 2 과. 신기한 종이장 제 3 과. 느티나무박물관 제 4 과. 하늘을 안으라 제 5 과. 래일 문법 1 나도 할수 있다(1)	설명과 리해 제 6 과.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 제 7 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제 8 과. 웅맹과 위엄의 상징 조선범 제 9 과. 시대를 변화시킨 정보기술 제 10 과. 아리랑이 걸어온 길 문법 2 나도 할수 있다(2)
---	---

서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학년 《국어》교과서에서는 재미 있는 이야기, 친절한 설명, 그림같은 묘사, 조리있는 설득의 체계로 구분한 네 개의 부분들에서 각각 필요한 학습과 실천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초급중학교 국어 1과 국어 2의 목차가 제목 위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된 것과 차이가 난다.

제1과. 김일성장군의 노래 제2과. 아홉명의 배사공 제3과. 조선의 제일봉 제4과. 마무와 길손들 나도 할수 있다 제5과. 밝은 눈 밝은 귀	제6과. 나는 철령소녀 제7과. 한사람 또 한사람 제8과. 뜨거운 마음으로 제9과. 세계탁구녀왕 박영순 나도 할수 있다 제10과. 짙따 녹았지
---	--

3) “제 ○ 과.”와 같이 몇 과인지를 알리는 표기 뒤에 온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 남한과 다른 특이점이다.

5.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용어 차이의 사례

1) 국어 초급중학교 2에 나타난 토론

북한에서 토론의 의미와 남한에서의 토론의 의미가 다르다. 북한에서의 토론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웅변이나 자기주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음은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를 온 나라의 축복속에 성대히 기념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할 충정의 결의를 다시금 새겨안으며 토론글을 쓰고 발표할줄 아는 능력을 키웁시다”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초급중학교 2학년 19단원의 토론글 사례이다.

(예2) 동무들!

지금도 저의 마음은 크나큰 기쁨과 감격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메산골의 이름없는 별목공의 자식인 제가 글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대표로 참가하게 될줄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는 백두산기슭의 정일봉중학교로부터 서해의 초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학교의 소년단대표들이 특별비행기와 특별렬차, 군함을 타고 다 모여와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특대사변이었습시다.

<중략>

동무들, 저는 맹세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을 심장속에 새기고 오늘의 귀중한 하루하루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준비해나가는 값있는 시절로 되게 하겠습니다.

<중략>

그리하여 고마운 내 조국을 억세게 떠받들어나갈 튼튼한 기둥감으로 참되게

자라나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합니다.

끝으로 우리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군조선의 소년단원들답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다해 받들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자는것을 호소하면서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우인철 외, 2014: 145, 147)

학습 활동에서도 “토론자는 어떤 맹세를 다집니까?” “토론글을 어떻게 마감지었습니까?” 등의 내용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토론글의 글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토론글의 글체계를 정리해봅시다.

글머리	토론하려는 중심내용이나 회의가 진행되는 때의 환경, 의의와 중요성을 쓴다.
기본글	
맺는글	결의와 호소적인 내용을 쓴다.

또한 결의토론글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다.

결의토론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총회나 모임에서 자기 조직 또는 자기자신의 결의를 담아 쓴 글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상화 교육 차원으로 토론이라는 담화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토론이라는 담화 유형에 접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다양한 의견에 접하게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 의견을 결정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가 있다. 다만, 승부를 가리는 경쟁적 말하기로 접근하는 문제는 토론을 교육적 차원에서 공론화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2) 국어 초급중학교 2에 나타난 읽기, 쓰기 용어

북한에서는 등산기라는 글의 유형이 있다. 등산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는 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우인철 외, 2014: 133). 남한에서는 기행문이라는 글의 유형이 있지만, 특별히 등산 기행문이라는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등산기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묘향산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속에 변모된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한껏 자랑하며 웅장하게 솟아있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은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만폭동등산길, 이 사랑의 길을 보답의 길로 이어가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라.(우인철 외, 2014: 132)” 등의 충성 표현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쓰기를 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 체제에 대한 충성이 모든 글의 필수 양식이 되어 있다.

3) 국어 초급중학교 2에 나타난 문학 용어⁴⁾

북한에서는 단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가 환경전개, 사건의 발생, 사건의 발전, 사건의 절정, 사건의 해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과 비슷하나 용어의 차이가 있다.

4) 국어 초급중학교 2에 나타난 상이한 문법 용어

첫째, 비유법 중 반어법에 해당하는 용어를 북한에서는 야유법이라고

4) 사례가 많아 문학 용어는 다른 기회에 상술하고자 한다.

한다. 초급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비유법으로 의인법과 야유법을 문법지식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야유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야유법이란 단어나 문장의 뜻을 정반대로 표현하여 부정적인것을 빈정대고 비꼬아주는 표현수법을 말합니다.

(우인철 외, 2014: 25)

남한의 도치법을 북한에서는 자리바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강조법을 내세움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리바꿈법이란 문장을 짝 짝 일부러 말마디들의 자리를 바꾸어놓은 표현 수법을 말합니다.

례: 빛나라 우리 평양

내세움법이란 문장에서 강조하려는 말마디를 특별히 앞에 내세워 두드러지게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례: 학습, 이것은 곧 전투이다. 학생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 그것은 학습을 잘하는것이다.

되풀이법이라는 용어는 남한의 반복법을 의미하는데, 되풀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대명사의 갈래를 사람대명사,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로 나누고 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남한과 차이가 있다.

〈표 9〉 북한의 대명사 유형

갈래	대명사
사람대명사	나, 우리, 너

가리킴대명사	이, 그, 여기
물음대명사	누구, 얼마, 몇

(우인철 외, 2014: 30)

셋째, 북한에서는 체언토, 용언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토란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를 다른 단어와 연결시켜주거나 어떤 사실이 있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문장이 끝났다는것을 나타내거나 그밖의 다른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형태부를 말합니다.

례: 목란꽃^이 곱^게 피^었다.

《목란꽃^이》의 《^이》는 《목란꽃》을 《^피었다》와 연결시켜주고있으며《^곱게》의 《^게》는 《^곱다》를 《^피었다》와 연결시켜주고있습니다. 그리고 《^피었다》의 《^었》은 《^피》는 행동이 과거에 진행되었다는것을 나타내고있으며 《^다》는 문장이 끝났다는것을 나타내고있습니다.

토에는 체언에만 주로 붙는 체언토와 용언에만 붙는 용언토, 체언을 용언으로, 용언을 체언으로 바꾸어주는 바꿈토가 있습니다.

체언토에는 격토, 도움토, 복수토가 있습니다. 용언토에는 맺음토, 이음토, 규정토, 상황토, 상토, 존경토, 시간토가 있습니다.

(우인철 외, 2014: 40)

격토의 종류로 주격토(가/이, 께서), 대격토(를/을), 속격토(의), 여격토(에/에게, 께), 위격토(에서/에게서), 조격토(로/으로), 주격토(와/과), 호격토(아/야, 여)를 제시하고 있다. 도움토는 단어의 역할과 뜻을 도와주는 토로 《도》, 《마저》, 《조차》, 《만》, 《부터》, 《까지》등을 의미한다. 복수토는 《들》하나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맺음토는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토로 남한의 어말어미를 뜻한다. 이음토는 남한의 접속조사를 의미한다. 규정토는 용언에 붙어서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해주면서 동시에 시간의 뜻도 함께 나타내는 용언토로 보고 있으며, 《는》, 《ㄴ(은)》, 《르(을)》, 《던》의 4개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상황토는 용언에 붙어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용언토로 《게》, 《도록》, 《르수록》, 《دت》, 《دت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존경토로는 《시(으시)》하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시간토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토로 《았(었, 었)》이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토로 《겠》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토는 동사에 붙어서 행동을 남에게 시킨다든가 남에게서 입는다든가 하는 뜻을 나타내는 토이다.

마지막으로 바꿈토는 체언에 용언토가 붙을수 있도록 해주는 《이》와 용언에 체언토가 붙을수 있도록 해주는 《ㅁ(음), 기》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넷째, 형태소를 북한에서는 형태부라고 한다.

형태부는 말뿌리와 덧붙이(앞붙이와 뒷붙이), 토로 갈라진다. 예를 들면, ‘맨손질만’은 맨(앞붙이)+손(말뿌리)+질(뒤붙이)+만(토)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붙이는 접두사, 말뿌리는 어근, 뒤붙이는 접미사, 토는 조사에 해당한다.

다섯째, 음운 첨가를 북한에서는 소리끼우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단어안에 없던 말소리가 끼워져 발음되는것을 소리끼우기라고 합니다. 소리끼우기에는 《ㄴ》소리 끼우는것과 《ㄷ》소리가 끼우는것이 있습니다.

여섯째, 감탄사를 북한에서는 감동사로 명명하고 있다.

6.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인식과 사상

1)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주의

북한 교과서에서는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제재를 다루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2과 ‘아홉명의 배사공’에서는 난파된 9명의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주장만 하다가 섬을 빠져 나가지 못하다가 한 사람이 키를 잡아서 목표를 향해 간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전개 방식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리더를 세우고 이를 따르는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같은 교과서 4과 ‘마부와 길손들’에서는 어느 산골 한 농군이 마차에 장작을 싣고 읍으로 나가다가 물고기, 무명필, 술을 가진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고 자신의 마차를 무료로 태워준다. 깊은 산골에서 큰 꿈을 만나게 되는데 객들이 가장 아끼는 물고기, 무명필, 술을 이용하여 꿈을 잡게 되고 꿈과 꿈 열⁵⁾을 얻어 판 돈으로 물고기, 무명필, 술보다 몇곱절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각자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맹수가 우릴 먹겠다고 달려드는 어려운 때에 귀한 물건들을 선뜻선뜻 다 내놓았고 또 하나로 마음을 합친 덕이지요! 위험한 때 제 리속만 생각하면서 뿔뿔이 달아났더라면 어떻게 될 번 했소?”라는 말을 말미에 제시하고 있다.

같은 교과서 6과 ‘나는 철령소녀’에서도 국가의 일이 우선이고, 개인의 삶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 소녀가 일기를 쓴 내용인데, 군관인 아버지가 조동명령을 받은 날 차에 짐을 싣고나니 날이 저물어 옆집할머니가 래일 떠나라고 하자 아버지가 《우리 장군님께서 비를 맞으면서도 넘으시고…(중략)…밤에도 넘으시고 새벽에도 넘으신 령이 아닙니까. 명령받은 전사가 어찌 밤길이라고 마다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나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감동되어 따라 나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주의 옹호하는 제재가 교과서에 많이 나온다.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18과에는 ‘거짓말이 진짜로 된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화적환상⁶⁾을 소개하고 있다. 양지마을이라는 동네에 몇해째

5) ‘응답’의 복현어

6) 동화적환상이란 아동문학의 한 형태인 동화에서 작가가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에는 없는 시기한 사실이나 생활을 실지 있는것처럼 그리는것을 말합니다. 작가는 적절한 생활적계기를 통해 동화적환상을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게 펼쳐보입니다(우인철 외, 2014: 142).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었다. 그 때 마치를 탄 젊은 군사가 찾아와 군량이 떨어져 곤란한 형편이라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식량 및 무쇠가마 등을 가지고 와서 돕는다. 어려운 형편에 돕는다는 것을 안 군사는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감자종자가 스무가마나 쌓여있다거나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변부자는 고간에 쌀이 가득하지만 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한되박의 쌀을 가지고 와서 돕겠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의 성의를 잊지 않고 후에라도 신세를 갚겠다고 이름을 적겠다고 하자 지나가던 로인이 책과 붓을 꺼내준다. 그 책에 기록을 하였더니 거짓말을 한 말대로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군사를 도우려는 뜨거운 맘은 복을 받지만 저 혼자 잘살려는 욕심은 응당 망하는 법이지.》라는 말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전체에 희생할 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글 마무리를 짓고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제재로 보아 개인주의보다 전체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2) 가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한 국어 초급중학교 1에는 ‘까까머리 학생’, ‘만년샤쯔’와 ‘성냥과는 소녀’를 제재로 다룬 단원이 있다. 14단원 까까머리 학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이 가난한 영남이는 머리 깎을 돈이 없어 어머니가 집에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까까머리라고 놀린다. 농달이라는 친구가 영남이 머리를 향해 밤알만큼 큰 무언가를 날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영남이의 머리를 맞히고는 유리창을 깨뜨리게 된다.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을 묻는 교사의 질문에 영남이가 자신의 머리 때문이라며 대신 나가고 이어서 농달이가 자백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계기로 영남이와 농달이가 친해지고,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의 집을 물어본다. 농달이는 보통문 토성랑에 살고 있다고 답하고 영남이는 칠성문밖 움막촌에 산다고 답하면서 헤어진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해방전 아동들의 눈물겨운 생활을 보여주는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파악하고 작품을 통하여 받은 느낌을 말

해봅시다”이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정직할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양의 외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제시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에 대해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재이지만 학습활동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어휘표현에 대한 활동,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매단계의 내용으로 밝혀보자는 활동, 문법지식 중 소리끼우기와 띄어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방정환의 ‘만년사쓰’는 실천의 길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까까머리 학생과 만년사쓰의 주인공을 비교하고 느낌을 말해보도록 하는 활동을 다루고 있다.

21단원 ‘성냥팔이 소녀’는 덴마크⁷⁾ 안데르센의 동화이다. 남한에서는 성냥팔이 소녀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선달 그믐날 밤을 즐기기 위해 만드는 음식냄새와 케사니고기⁸⁾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다(우인철 외, 2013: 190)”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식으로 표현을 바꾸어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말 대신에 “설맞이소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녀는 참으로 아름답게 꾸민 설맞이소나무밑에 앉아있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작년 설맞이날 때 어느 부자집 유리창너머로 들여다본것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달려있었습니다. 수많은 초불이 푸른 가지에서 반짝이고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에서 주체적으로 번역 및 개작하여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다. “하늘나라에는 추위도 배고픔도 그리고 걱정거리도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냥팔이 소녀의 가난에 대한 고달픔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부자집의 모습과 대비함으로써 극화시키고 있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주인공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화를 읽고 주인공의 모습을 밝히는 능력을 키웁시다”이다. 학습활동은 어휘표현, 주인공소녀의 모습 밝히기, 문법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인공 소녀가 바라는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성냥팔이 소녀가 그린 유

7) 덴마크의 북한식 표기임.

8) 거위고기

토피아의 세계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4단원과 더불어 21단원도 가난과 부자의 대비를 통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제재를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3) 원수에 대한 반감적 태도 강조

국어 초급중학교 1학년에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재가 나온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를 밝히고 우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한 단원이다. 무더운 여름날 악어가 원숭이를 만난 상황에서 그저 바라만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몸쓸병까지 걸려 자꾸 배가 불어난다”고 하면서 “래일 내가 죽으면 나무가지라도 덮어달라”고 한다. 다음날 늑가를 지나가던 원숭이는 늙은 악어생각이 나서 악어에게 다가간다. 죽은듯이 엎어져있던 악어가 원숭이를 덮쳐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이다. “원수에 대한 동정심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채 원숭이는 죽고말았습니다(우인철 외, 2013: 95).”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북한에서는 원수라는 용어를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원수와는 추호도 타협할 수 없음을 가르친다. 실제로 『조선말례절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낮추는 언어례절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에 대한 언어표현을 바로 쓰는것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미워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이며 우리 혁명 발전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사회생활과정에 주고 받는 말에도 경멸, 증오적인 표현들을 골라써서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을 미워하고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로동계급적립장을 튼튼히 지키며 견결한 투쟁정신을 키워야 한다. (중략)

○《구장녀편네는 대가리가 쏜다고 큰무당을 불러들여 매일 굶하느라 지랄

인데...»

이와 같이 지난날의 착취계급과 앞잡이놈들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증오와 경멸의 감정이 강렬하게 나타나도록 그런 표현을 잘 찾아써야 한다.

(김동수, 1983: 181)

원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남북 언어표현의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언어례절을 세 가지 즉 높이는 언어례절, 같이대하는 언어례절, 낮추는 언어례절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남한의 존경법에서 반말을 zero honorific으로 명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낮춤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견해⁹⁾도 있음을 고려할 때 남한과는 다른 접근이다. 인권적 차원에서 볼 때도 낮추는 언어례절을 가르치는 발상은 재고해야 할 교육 내용이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소학교,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구성 체계, 내용, 특징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2013년 이후 교육의 큰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소학교에서는 영역 중심별 단원 구성을 하고 있으며, 학습 활동 위주의 교과서 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과서 구성상 학습목표를 고려한 점이 포착되기도 하나 학습목표를 반영하여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초급중학교에서는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변화된 모습이며 초급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단원 구성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 목표가

9) 고 이용주 교수가 수업시간에 언급한 견해

제시된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북한 교과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엿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시도가 아직 미미하며 가야할 길이 멀다. 이러한 시도가 있기에 이전보다는 남북 통일 교과서 제작에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 본 논문은 2018. 7. 31. 투고되었으며, 2018. 8. 2. 심사가 시작되어 2018. 9.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1987), 『북한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 정치 사상 교육 실태 중심』,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1992), 『북한의 교과서 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 권순희·강보선·주재우·정진석(2017), 「남북한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초등국어교육』 63, 5-27.
- 권순희·주재우·김윤정·변경가·정경화(2018),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천재교육.
- 김동수(1983), 『조선말례절법』,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선철·김건희(2009), 「남북한 교과 용어의 어휘론적 차이에 대하여」, 『언어학』 55, 27-59.
- 김양희(2004),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80년대 이후 북한의 [국어] 교과서 연구」, 『국어교육연구』 13, 373-403.
- 김인전(1998), 「북한 인민학교 국어, 수학, 자연 교과서 분석」, 『초등교육연구』 12, 29-42.
- 김재복·김왕근·양비경·이혁규(1998), 『통일 대비 교과서 편찬 방안 연구』,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도설희(2008), 「남북한 언어통일 방안 연구: 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비교를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리근세·최은향·한송이·구경희·김만경·박복실(2015), 『국어 초급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성순옥·김화옥·하정순·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2013), 『국어 소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염정실·송일녀·김성옥·하정순·성순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3-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염정실·송일녀·김성옥·하정순·성순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3-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민병근(1999), 「남천(南川) 박갑수(朴甲洙)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북한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9, 455-500.
- 심경호(1991), 『어문 분야: 총론, 북한의 한국어학 연구 성과 분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우인철·구경희·방복림·문성·백광명·장광길·리정화(2013), 『국어 초급중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우인철·백광명·구경희·문성·방복림·장광길(2014), 『국어 초급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윤희원·박갑수·박영목·이주행·한철우(1997), 『남북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연구』, 서울: 서울사대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이동배(2009), 「해방 후 시기의 남북한 초등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새국어교육』 83, 337-356.
- 이성연(2007), 「남·북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분포」, 『새국어교육』 77, 553-582.
- 이성연·정옥란(2006),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 『새국어교육』 74, 193-223.
- 이인제·최미숙·송현정·이재기·민병근(2000), 『남북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주행(1998), 「남북한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쓰인 언어 비교 분석 연구」, 『국어교육』 98, 177-214.
- 전수태(1992), 『북한의 국어 교과서 분석, 북한의 언어 정책』,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전장길·문재홍·황철명·리광섭·홍기천(2004), 『국어(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진용성·차혜나(2018),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 『청람어문교육』 66, 59-83.
- 최현섭·이인제·최영환(1996),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한철우(1998), 「북한 국어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한국교원대한국어문교육』 7(5), 313-343.
- 허숙(1990), 『북한의 취학전 및 초등교육, 북한 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 허재영(2007), 「북한의 문법 교육: 고등중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7, 291-308.
- 홍지선(2013), 「북한 문학 교육 연구: 『국어문학』과 『문학』 교과서 비교 고찰」,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권순희

본 연구는 최근 개정 북한 소학교,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에 입수된 북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기존 교과서에 비해 서문 양식의 추가, 목표 중심의 국어교육 지향, 경쟁 위주의 교육 지향, 삽화와 더불어 사진의 새로운 등장, 학습활동 중심의 제시, 실천의 길을 넣어 응용 및 적용 활동 제시, 복습 활동 제시 등의 특징이 드러났다.

남한과 다른 학습 용어의 사례로는 토론을 들 수 있으며, 문학용어의 발단 대신 환경전개를 사용하였으며, 야유법, 자리바꿈법, 되풀이, 사람대명사,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 격토 등의 문법 용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인식 및 사상으로는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주의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원쑤에 대한 반감적 태도가 남한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북한 국어 교과서, 교과서 특징, 목표 중심, 전체주의, 원쑤에 대한 반감, 통일 대비 국어 교육

ABSTRACT

Analysis of North Korean Textbooks Revised in 2013

Kwon Soonh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 of North Korean textbook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textbooks were examined. Results revealed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addition of preface form, goal-orien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petitive education orientation, photo presentation, learning activity presentation, application activity, and review activity presentation.

In North Korea, the term “debate” is employed differently from South Korea. In North Korea, the term “environmental development” is employed instead of “introduction”. In grammar, terms such as irony, doctrine, repetition, personal pronoun, direct pronoun, question pronoun, and postposition are different. North Korean textbooks primarily contend with totalitarianism rather than individualism, and their positive perceptions of poverty and antipathy toward enemies differ from South Korea.

KEYWORDS North Korea Text Books, Characteristics of Text Books, Goal-oriented, Totalitarianism, Antipathy toward Enemies, Unification, Korean Education